

A8-1-16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교육자료 제 3 집

매춘문제와 여성운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매춘문제와 여성운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인권 자료		
		A8-1-16

머 리 말

80년대 들어서면서 여성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 많은 성과를 올렸으나, 정작 가장 비참하게 짓밟히는 매춘문제는 거론되지 못했다.

매춘문제는 매춘여성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TV선전이나 신문광고에 공공연하게 여자의 벌거벗은 몸이 상품내용과는 무관하게 남용되고 있고, 이 땅의 딸들이 외화획득이라는 미명하에 강간당하는 기생관광은 여행사 코스에 공식화 되어 있다.

특히 88년 전면개방을 앞두고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우리 딸들에 대한 위기를 외면할수만은 없다.

이 소책자는 그동안 우리가 눈감고 지나쳤던 매춘문제를 인식하자는 취지에서 1986년 10월 14일에 본회에서 개최한 '매춘문제와 여성운동세미나'를 정리하여 만들어졌다.

1부는 서로 직업, 학력, 생활정도등이 다른 여성이 모여 매춘문제에 대해 토론한 것이며, 2부는 현장사례중심으로 묶었고, 3부는 매춘에 대한 여성운동론적 접근으로 구성하였다.

부족하나마 그간 우리나라의 매춘에 대한 대중교육자료가 전무한 현실속에서 귀중하게 쓰여지리라 믿는다.

1987년 9월 일

회장 이 열 회

순 서

I부. 매춘 그 해결을 위하여..... 5
 매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II부. 매춘 그 현장 15
 의정부, 40 년의 기지촌역사..... 17
 국적불명의 섬, 제주도 28
 성(性) - 제국주의의 희생자들 39

III부. 매춘 문제에 대한 여성운동론적 접근 57
 매춘문제에 대한 여성운동론적 접근 59

- 이미경 -

1. 序言 1

2. 第一章 10

3. 第二章 20

4. 第三章 30

5. 第四章 40

6. 第五章 50

7. 第六章 60

8. 第七章 70

9. 第八章 80

10. 第九章 90

11. 第十章 100

12. 第十一章 110

13. 第十二章 120

14. 第十三章 130

15. 第十四章 140

16. 第十五章 150

17. 第十六章 160

18. 第十七章 170

19. 第十八章 180

20. 第十九章 190

21. 第二十章 200

22. 第二十一章 210

23. 第二十二章 220

24. 第二十三章 230

25. 第二十四章 240

26. 第二十五章 250

27. 第二十六章 260

28. 第二十七章 270

29. 第二十八章 280

30. 第二十九章 290

31. 第三十章 300

32. 第三十一章 310

33. 第三十二章 320

34. 第三十三章 330

35. 第三十四章 340

36. 第三十五章 350

37. 第三十六章 360

38. 第三十七章 370

39. 第三十八章 380

40. 第三十九章 390

41. 第四十章 400

42. 第四十一章 410

43. 第四十二章 420

44. 第四十三章 430

45. 第四十四章 440

46. 第四十五章 450

47. 第四十六章 460

48. 第四十七章 470

49. 第四十八章 480

50. 第四十九章 490

51. 第五十章 500

I 部. 매춘 그 해결을 위하여

매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글은 “매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성들이 모여 토론한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매춘문제를 토론과정에서 그 심각성과 본질을 인식하고, 해결방안까지 모색해본 본 토의는 학술적 가치라기 보다는 우리가 매춘문제를 인식했다는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

- 매춘은 현대사회에서는 어쩔수 없는 필요악이다. 과거엔 남자들이 오입하는 정도로만 보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윤리관에 어긋난다고 보아 공창제를 폐지했으나 현재 이렇게 음성화되고 기업화되는 바에야 차라리 공창제를 두는 것이 어떨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제도화된다면 매춘여성이 포주에게 당하는 희생을 덜어줄수 있을 것이다.
- 공창제가 없어지게 된 것은 그냥 정부가 없앤것이 아니다.

1916년에 정부가 공창제를 만들었을때, 우리 여성들은 “공창제는 정부 스스로가 매춘행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여성에 대한 인권탄압이고 모독이다”라고 강력히 탄원한 결과 없어진 것이다.

이것은 여성운동의 커다란 성과인데 지금에 와서

다시 공창제를 둔다는 것은 여성운동의 후퇴를 의미한다.

- 매춘여성이 자주 늘어나는 것은 고용의 기회가 적어서 그렇다.

고용의 기회를 늘리면 매춘 여성도 줄어들 것이다.

- 매춘여성에게 완전고용의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매춘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성격때문이며, 그것이 매춘을 가능케 한다.

- 성을 상품화시키는 것은 매춘여성만이 아니다.

TV선전의 '소프트렌즈'에도 여성의 육체가 나온다. 이것은 곧 모든 여성의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에 적극 반대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동안 여성들이 눈감고 지나간 결과가 여성을 공공연하게 상품화시키는데 일조한 결과가 되었다. 여성들이 이런 부분에서 먼저 눈을 떠야 하고 사회전체적으로 여론화 시켜야 한다.

-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도록 조정한 정부도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 매춘은 전통형 매춘과 산업형 매춘이 있는데, 이 중 문제는 산업형 매춘이다. 정부가 경제성장정책이란 미명아래, 산업화란 미명아래, 서비스업

종을 확대시키고 여성의 성을 상품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 매춘을 해결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인 부분에서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현상치유, 둘째는 근본적 모순 해결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 그렇다면 우리는 매춘여성이 포주에게 뜯기는 상태나 다른 불이익을 제거시켜 그들의 권익을 옹호해 줘야 하는가?

아니면 비인간화되는 것이 매춘이고 그것이 제국주의 침략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가?

- 우리는 매춘여성 10명중 8명을 건지기 위해 노력해선 안된다.

그들의 문제가 곧 전체 여성의 문제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하며, 여기서 매춘문제의 해결이 출발되는 것이다.

- 이것과 동시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매춘문제를 알리고 여론화시켜야 한다.

이랬을 때만이 매춘문제를 매춘 여성에게만 맡기지 않고 모든 여성이 알고 행동에 참여, 그들을 지원해

줄수 있는 세력이 된다.

또한 매춘 자체에 대한 비타협적 추구를 해나가며 전체 여성을 보호해 나가야 한다.

- 매춘문제는 우선 매춘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즉 조합적 활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은 단지 그 초기적 단체로 '민들레회'가 있으나 그것을 조금더 활성화시키고 진정 매춘 여성을 위한 단체로 변화시켜야 한다.
- 실질적으로는 포주와 매춘여성의 관계에서 포주의 이윤 폭을 줄여 나가면 즉 포주의 착취를 근절시켜 나가면 그리고 요정주인과 기생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된다면 작은 착취구조의 사슬을 깨어져 나갈 것이다.
- 포주의 착취에 대한 신고센터 개설이 광범위하에 되어야 한다.
정부만이 아닌 사회단체에도 생겨나야 한다.
- 고객과 중간매매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생겨나야 한다.
- 근본적으로는 경제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
즉接客업소가 성장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리고 기지촌의 철수는 당장 생계의 위협 차원

에서 반대한다는 낮은 수준에서 보지말고, 대국적 수준에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평화적 조건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 행정적 조치를 살펴보자.
이런 업소에 대한 영업허가제, 허가요건을 강화시키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업소를 그 지역의 인구수와 경제지표에 따라 허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조장하고 무원칙적으로 팽창시키고 있는 세력들을 폭로해내고, 국민의 힘으로 못하도록 해야 한다.
- 대정부 범국민운동으로 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이뤄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금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
- 가정에서 부터 변화해야 한다.
남성이 가정에서 주인처럼 하는 것은 여성이 동료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 운동의 출발을 지금 내가 속해있고 생활하는 장에서 부터 시작해야 되며 작은 부분 부분에서의 실천이 곧 매춘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

- 숨겨졌던 매춘문제를 선전해내고 여론화시켜야 한다. 이런 문제를 도의시해왔던 여성운동단체들은 각성하고 이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CBS를 이용하고, 각 신문의 종교란을 이용, 적극 홍보하자. 그리고 각교회 여전도회도 이용하여 힘을 일원화시켜야 한다. 또한 노동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건전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사회사업을 계속 활성화시켜야 한다.
- 끝으로 교회여성연합회에 바라고 싶은 것은 매춘문제를 조직적으로 풀어나갔으면 하는 것이다. 수년전 자료집발간으로 포문을 열었으나 그후 힘이 모아지지 않은 것을 조직적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매춘문제의 공개화와 그런 것을 통해 모이는 사람을 소그룹화 시키고 그들을 묶어 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매춘문제의 중심적인 활동의 주체가 되었으면 한다.
- 교회여성연합회에선 우선 관심을 가진 분들께 유인물이나 책자를 보내드리려 한다.

- 그리고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 88년전까지는 여론을 조사하고 지역을 선정 조사 연구하여 객관적인 Data를 공개하려 한다.
- 달걀로 바위치기란 말이 있다. 그러나 달걀을 모아 지렛대를 사서 바위를 밀어낼수 있다. 작은 의견이라도 함께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Ⅱ부. 매춘 그 현장

의정부, 40년의 기지촌역사

의정부는 지역 자체가 기지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살지 않는 한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다. 또한 이전의 윤락 여성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던 활동가들의 그릇된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기에 매우 어려웠다. 즉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접근해 이분들은 기독교 자체에 대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작업을 좀더 원활하기 하기 위해,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국제결혼한 여성들과, 그외 기지촌 여성들은 '민들레회'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민들레회는 기지촌 여성들의 일종의 자치조직으로, 처음에는 자체 경조사를 돕기 위한 조직으로 시작했으나, 정부측에서 인수, 새마을 조직처럼 모든 기지촌마다 '민들레회'를 조직했다. '민들레회'의 도움을 받아 기지촌 여성을 만날 때는 매주화요일 마다 성병진료소에서 하는 검진 날이었다. 기지촌 여성들은 이 검진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영업을 할수 없으므로 이들에게 있어선 보건증이 우리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한다.

성병진료소에 처음 갔을때는 충격적이었다. 여성들도 10

대부터 50 대까지 있었고 누가 어디까지가 기지촌 여성인지 분간이 안 갔다. 여러번 지나면서 보니까 미군이 이땅에 주둔하면서 부터 40 여년동안 기지촌을 떠들며 그들과 함께 살아온 여성들이 바로 그들이였고 그래서 그들의 나이수준이 다양했던 것이다. 또한 더 이상 윤락 행위를 할 수 없는 나이 많은 여성들은 방송매체의 무분별한 자세로 말미암은 서구문화에 잠식 당한 어린 여성들에 의해 일자리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몸이 병들었어도 의탁할 친지나 친구도 없는 상태여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의정부는 8 개의 크고 작은 미군기지가 있으며, 최근에는 이지역 출신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 **갈곳없는 철새**

500 여년의 전통적 유교윤리에 젖어온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성의 성윤리에는 굉장히 억압적이므로, 기지촌 여성들은 기지촌을 떠나서는 살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은 물론 친구들과도 절연된 상태로, 세상사람들이 암적인 지역으로 바라보는 기지촌에서 암적 존재로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 약 20 여 도시에 40,000 여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그 주변은 기지촌을 형성하고 있다. 기지촌 여성들은 이들을 따라 철새처럼 전국을 떠들며 생활

하고 있는 것이다.

* 고통의 끝, 기지촌

기지촌에 들어온 경위는 매우 다양하다. 그중 절대적 이유는 가난이다. 그외 결혼가정, 이혼, 직업소개소, 어린이 학대 등이 대부분이다. 가난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은 현실이며, 이는 이땅에 사는 대다수 민중들의 고난을 반영한 예다. 한국과 같이 남존여비의 유교사상에 젖은 의식구조에서는 딸을 희생하여 아들을 공부시키게 된다. 오빠나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하여, 또는 가난한 가정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공장에 들어갔다가 조직적으로 굴러서 한국 술집으로 끝내는 기지촌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들면 열심히 노동운동을 10년이상 한 여성도 그만 피터지게 싸운 끝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먹고 살길이 막막해지니까, “죽은 목숨이다, 내일부터는 맥주 집이라도 나가야 겠다”고 어쩔 수 없이 윤락가에 들어갔다.

그러나 요즘은 점차 빈곤이란 이유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 가정에서 자란 경우, 즉 부모가 없거나 양친중 한명이 친부모가 아닌 경우 특히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은 자괴감에 빠져 자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

고 가정에서 뛰쳐 나왔을 때 흔히 빠지기 쉬운 곳이 윤락가이다.

이혼을 한 경우는 남편이 외도를 해도 비상식적으로 해서, 견디다 못해 가출할 때 이곳에 오게 되는 예이다. 기혼여성은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공장에서도 잘 받지 않기 때문에 흔히 윤락가로 오게 된다. 또한 동거하다 헤어지게 되는 경우 “순결을 잃으면 여자의 생명은 끝이다”라고, 완전히 자포자기해버려 자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다. 어찌면 이들은 기지촌 여성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보다 더 순수한 것이 아닐까?

어린이 학대도 큰 이유로서 대두되는데, 이들도 대부분 농촌에서 자라나 10 세도 되기 전에 가사노동 전체를 책임지게 되거나, 부모의 울분을 폭발하는 배출구로서의 대우를 받은 어린이들 이었다. 이들은 일찍 가출하여 윤락가로 오게 된다. 신문광고에 나는 “월30만원 보장, △△씨롱”등은 또하나의 매춘여성을 늘리는 이유가 된다. 이들은 너무 순진하여 믿고 찾아갔다가, 몸 버리고 빚만 잔뜩 안고, 윤락가로 이첩된다. 이 경우 일자리를 옮길수록 빚이 늘어나 평생 못벗어나게끔 되었다.

* 잘려진 날개

기지촌 여성들은 대부분 포주와 빚 관계로 묶여 있다. 송산지역 중심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보통 한 사람당 100만원~4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 빚은 기지촌에 오래있으면 있을수록 자꾸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통 이들은 한국술집에서 미국술집으로 오게 되는데, 한국술집의 주인에게 보통 30만원의 빚을 지는데 이 주인이 비인간적으로 확대를 하면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자기가 진 빚 30만원을 갚아줄 수 있는 직장을 소개받게 된다. 그러나 이 직장은 더욱 저질이고, 여성은 자기가 진 빚 30만원에 프리미엄이 붙어 팔려가게 되는 것이다. 즉 직업소개소에서 5만원을 소개비로 받았다 하면 그 여성은 35만원에 팔려가는 것이다. 이들은 기지촌에 처음오게 되면 평장히 작은 방에 더블베드와 기본적인 장농등 100만원어치를 들여놔 주고 그것이 포주에게 진 빚으로 쌓이게 되고 결국 그 빚에 묶이게 되는 것이다. 기지촌 여성들이 사는 집은 입구에는 주인방이 있고 입구 ㅁ자로 다닥다닥 조그마한 여자들의 방이 있어 드나들때 마다 주인이 감시하게 되었다. 마치 감옥처럼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도망치면 섬에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한다. 일단 섬에 팔려가면, 탈출할 수도 없고 경찰과 포주가 친한 관계를 유지하

기 때문에 평생 섬에서 살아야 하므로, 여성들도 도망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다.

* 연중무휴, 하루밤에 20 \$

기지촌 여성들의 하루는 오후 4시부터 시작된다. 4시부터 화장을 하고, 미군이 퇴근하는 4시반이나 5시 쯤에 자신이 속한 크럽으로 일하러 간다. 밤 10시나 11시가 넘으면 흥청되기 시작하는데, 기지촌 여성들은 그동안 포주에게 진 빚을 하루라도 빨리 갚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러기 위해선 오직 술을 많이마시고, 미군과 많이 자는 수밖에 없다. 기지촌 크럽은 안주라는 것은 없고, 아가씨들에게 사주는 술이 따로 있다. 이 술은 팁을 대신하는 것으로 3 \$, 5 \$, 10 \$, 20 \$ 등이 있는데, 거의 3 \$ 짜리로 사주게 된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20 \$ 짜리의 술을 사준다고 계산할때 한화로 환산하면 17,000 원인데 이중 2,000 원이 여성의 장부에 수입으로 환산되고, 15,000은 포주의 수입이다. 2,000 원도 포주의 손을 거쳐서만이 여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남자와 자는 경우도 긴밤 (1박)의 경우와 짧은 밤의 경우가 있는데, 긴밤 (1박)은 20 \$, 짧은 밤은 10 \$로 이것 역시 주인을 통하여 아가씨 손에 들어오게 된다.



이들은 대부분 다음날 새벽까지 일을 하게 되며, 아침식사를 거른채 잠을 자면 오후에 일어나 다시 화장하고 일하러 간다. 굉장히 잘 버는 여성의 수입이 월 40~50만원인데, 이

것도 두끼 식사를 포함한 방세 월 10여만원을 크립주인에게 지불하면 실제 이들이 쥘 수 있는 돈이란 겨우 20~30 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속에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몸이 망가지게 되고, 몸이 아프면 영업을 못하고 계속 포주에게 한달에 10만 원씩 빚만 지게되고 그 빚은 복리로 늘어나게 된다.

결국 발버둥치고 나오려고 할수록 육체적 정신적 황폐만을 가져오게 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 유일한 희망

대부분의 기지촌여성들은 이런 숨막히는 다람쥐 쳇바퀴같은 생활에서 벗어나는 길은 국제결혼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어병한 미군을 잡아, 내 얼굴을 모르는 미국에 가서 새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하루밤 즐기러 찾아온 미군과, 이들을 잡으려고 안간힘 쓰는 이런 여성들 사이엔 불신만이 싹트고, 이들의 관계는 점차 돈으로 사고 파는 비인간의 관계로 되가고 있다.

* 그들에 햇빛을

기지촌 여성들에게 있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우

WE'RE WAITING FOR YOU!



Fair Lady
COFFEE SHOP & PIANO BAR

ALL DAY & NITE
HAPPY HOUR
PRICES **B 25**
PER DRINK

선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합하여진 애정이다.

통계를 낼 수 없는 형편이니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전국에 이런 여성들은 100 만명~ 400 만명 까지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듯 많은 여성들이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긍지나 여성으로서의 희망을 박탈당한채 그늘진 속에서 짙은 소외감과 고독속에서 살아가고있

으며 아무도 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고 또 이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70년대 아무도 힘을 가졌다고 믿지 않았던 노동자들이 뭉쳐 일어났을때 우리는 그들의 엄청난 위력과 희망을 보았다. 우리가 송산에서 하는 일의 목적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억압으로 부터 해방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인간임을 선언하게끔 하는 일이다.

허나 이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되는 일이다.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바란다.

국적불명의 섬, 제주도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육지와 많이 떨어져 있어 지역적 특수성이 아주 강한 곳이다.

제주도라면, 특이한 언어, 민속자원, 자연경관, 위락을 위한 휴식처로만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 지역 역시 지역 주민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 땀흘려 살고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먼저하고 보아야 한다.

제주도의 근현대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민중봉기가 있었다. 그런 뿌리깊은 제주도가 현재 왜 '위락을 위한 휴식처', '관광지'로만 인식되게 됐는가?

오랫동안 제주도는 소외된 땅, 중앙에서 떨어진 변두리, 버림받은 땅이라는 인식이 제주도민에게 쌓여있다. 이런 폐쇄적이고 소외된 역사를 가진 제주도가 60년대 이후에 들면서 중앙의 관심을 끌게 된다. 그 전까지는 버려진 자식으로 취급받고 역사적으로 소외와 수탈만을 받았는데 60년대 들면서 달라진 것이다. 그러나 6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의 성립은 '제주도관광'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나마 60년대엔 제주도가 특수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관

광을 위주로 한 관광계획이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82년에 들어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확정, 전면적인 개발 단계로 들어갔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규모 국민관광 위락단지 조성' '외국인 관광입주 자유지역 설정'으로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외국인 관광자유지역' '외국인 직접투자허용' 등 외국인에게는 모든것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런 계획에 의해 정부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하여 제주도에 살고 있던 주민을 밀어내 현재 제주도땅의 70%는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다. 즉 발동된 토지수용령은 '토지이용 계획법' '도심 계획법' '관광사업법' 등 여러가지 법시행령을 담고 있어, 원래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외부로 쫓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 또한 중문 관광단지 계획을 보면 정부의 의도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82년종합계획표안에는 640평의 한국요정건설계획이 들어있다. 84년에는 중문 인접지역인 화순지역 일대를 국제자유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85년도엔 '제주도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이란 명목으로 관광법이 바뀐다. 중문 관광단지 계획은 91년이 되면서 숙박능력이 하루 5,200명, 관광시설 위락인구가 6,700명으로 하루

수용능력이 12,000 명에 달하는 거대한 국제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 일회용 휴식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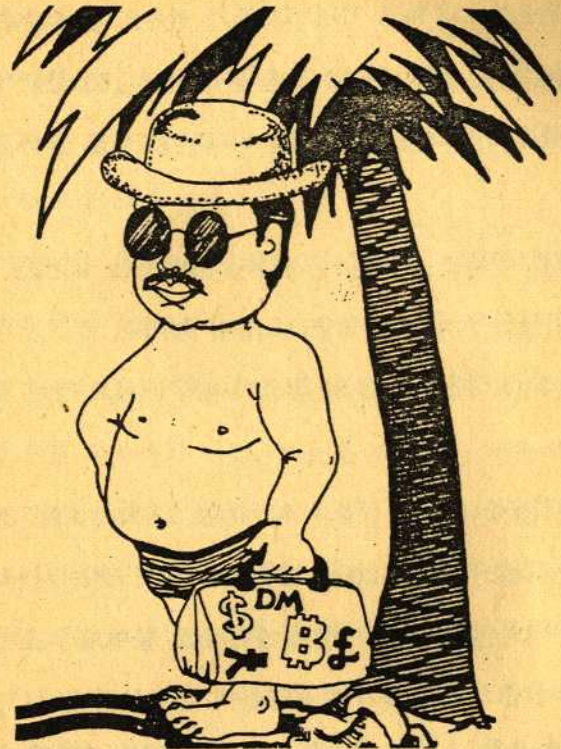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순수한 제주도의 관광만을 위해서 온다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정부의 개발 계획에 '한국관'이란 청사진이 선명하게 나왔듯이 숙박 위락 시설이 증대하는데 기생관광이 늘지 않는다고는 보장할 수 없다. 결국 제주도 개발계획은, 지역민을 위한 것이 아닌, 60년대부터 파행적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 경제의 모순을 제주도를 이용, 해결해 보겠다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특이한 민속자원, 온화한 기후등 예쁘게 포장하는 반면, 내부적으로는 제주도 전지역을 노비자지역으로 만들어 외국인 면세점으로 유인하고, 가장 중점적으로 매춘관광을 합법적으로 적극 확대 시켜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관광객은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오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제주도를 찾아온 전체 외국인 관광객수는 84년엔 49,000명, 85년엔 74,000명으로 1년동안 51%가 급증했다.

게다가 제주도는 노비자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국제항



공선이 정기적으로 3편이 개설되었기는 하지만, 전세기들이 많이 들어온다. 올해 2월 8일~9일 이들 사이에 들어온 일인은 1,300 여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80%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미국인, 중국인, 영국인 순이다.

관광객들은 순수관광을 즐기러 온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85%이고, 상공의 목적은 9.4%, 친구, 친지 방문은 1.3%이다.

이들의 여행동기는 여행사의 권유나 광고가 35.4%, 친

구의 권유가 33%로 거의 70%가 권유로 찾게된다.

연령분포를 보면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의 '권태기'라고 하는 연령대가 가장 많고 60대 70대도 흔히 볼 수 있다.

직업별 분포는 회사원이 50%, 서비스는 23%로, 여기서 회사원은 주로 운전수, 노동자 등이다.

여행시 일정은 2박 3일 코스가 대부분이고 장기 체류는 없다.

방문횟수는 처음이 78.5%, 2회 12%, 3회 2.6%로 많이 찾는 사람이 없다. 제주도를 많이 찾는 사람은 기생관광이 목적이거나, 여행을 수단으로 들어와 소지품을 팔면서 상습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86년 9월 11일자 중앙일보를 보면 일본 관광객이 제주도 에 와 동료 관광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보도되었다. 이것을 읽어보면 "노비자 지역, 기생관광을 즐길 수 있다."고 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제주도가 관광기생지역으로 부상하면서 동시에 국제 범죄의 지역으로 부상되고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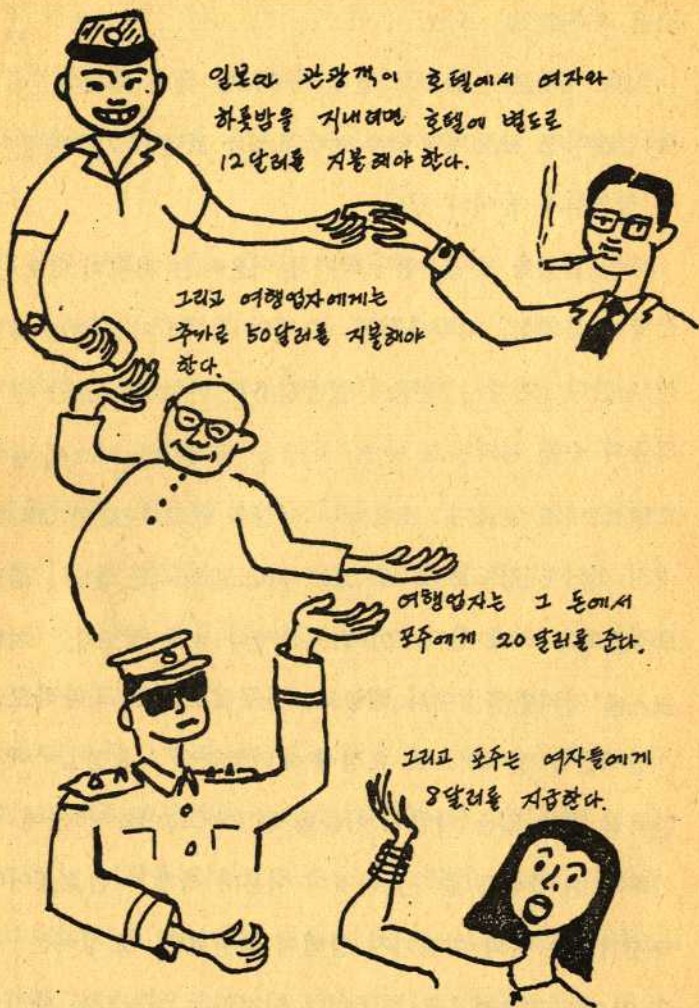
*** 이상한 저녁만찬**

외국인 관광객중 85%를 차지하는 일본인은 관광의 성

격을 좌우한다.

이들 대부분이 권유로 인해 제주도를 찾게 되는데 이들을 안내하는 관광여행사의 여행코스를 보면 '기생관광'이 당연하게 들어가 있다.

하루 일정을 보면, 관광객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으면, 공항에 통역원, 여행사직원, 요정의 간부진이 이들을 맞으러 나간다. 여행사 직원이 입국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관광객들의 수를 파악하고 나면, 이들을 대기시킨 버스에 실어 호텔에 내려 놓는다. 호텔에다 여장을 풀고 나오면 30분 내지 1시간 정도로 볼 수 있는 시내 관광지만 돌고, 곧장 요정으로 데리고 간다. 이때가 3시나 4시 정도다. 여행코스엔 '저녁만찬'이라 해놓고,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오는 관광객들을 전세버스로 요정에 내려놓는다. 요정입구에선 한복을 곱게 입은 마담이 이들을 환영하고, 이들의 손에 종이쪽지 한 장씩을 준다. 이것이 이른바 짝짓기 번호표이다. 짝짓기에는 이외 여러가지 방법이 동원된다. 요정에선 될 수 있으면 일본식으로 타국이나 외지라는 이질감을 주지않게끔 가라오케와 일본음악을 틀어준다. 만찬이 두 세시간 정도되면 다 끝나게 되는데 이때가 9시 정도다. 이것이 끝나면 관광객들을 다시 2차로 가라오케로 데리고 간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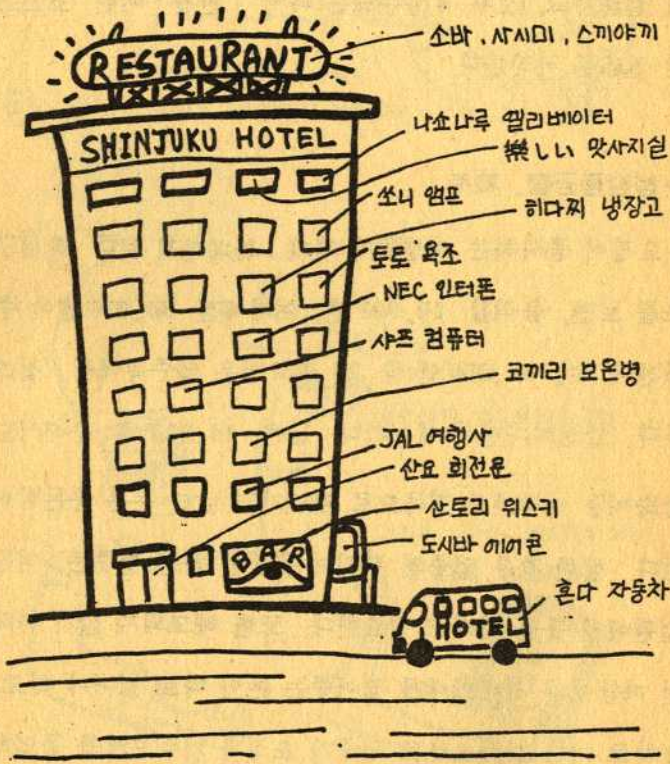
일종의 합법화된 감금의 한페들

곳은 탁자형으로 되있어 중앙에 마스터가 손님의 요청에 따라 노래를 틀어준다. 요정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다음날 아침 10시쯤 호텔 후문으로 나와 대기하고 있는 주인집 차에 실려가고, 오후 4시부터는 다시 '만찬'이란 코스부터 일과를 시작한다.

*성상품공장, 제주

요정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확대, 확대라기 보다 착취구조를 보면, 음식값 10,000 엔, 여자에겐 30,000 엔이 주어진다. 이 30,000 엔 중 20,000 엔은 업주측에서 접대비다, 알선비다면서 떼어간다. 남은 10,000 엔 중에서도 합숙비등 여러가지 명목으로 떼어가면 남은 돈은 용돈밖에 없다. 심한 경우 업주의 부인이 옷집을 하면 업주는 여종업원에게 옷을 사라고 강요한다. 또한 해고되지 않기 위해선 마담이나 지배인에게 집어주는 돈이 따로 있어야 하고, 2차로 가는 가라오케도 업주가 요정과 가라오케를 동업하므로 안가면 해고된다. 이들이 호텔을 출입할때도, 출입증이 있어, 호텔카운터에서 손님이 없다고 했을때 거기서 손님이 올때까지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상품처럼 앉아 있어야 한다.

외화 획득 ?



제주도 요정은 다른 곳과는 달리 기업화 되고 있고, 이들의 규모는 중소기업 뺄칠 정도다. 한 요정마다 보통 100 ~ 150 명의 여자를 데리고 있으며, 이들을 집단합숙 시키고, 이것이 점차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86년도엔 서귀포에 관광요정이 새로 생겼는데, 이곳도 대궐같은 집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집구조를 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대문이 없고 개방식으로 86년 아시안게임과 때를 맞춰 개장했다. 예전엔 관광요정하면, 폐쇄적으로 해왔으나 이젠 개방적으로 드러내 놓고 하고 있다.

이런 관광요정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통 어마어마한 뒷배경을 가지고 있다. 한 요정주인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공식적인 명함이 '제주도 관광협회장',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제주도 정책 자문위원'이다.

기생관광은 요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요정과 호텔, 여행사가 체계적으로 연결, 조직적으로 기생관광사업을 벌여 나가고 있다.

여성들도 기생관광 요정의 여성들이 모자라면 다음 다음 순으로 쪽 연결되어 있어 커다란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창 관광철일땐 100~150 명이나 되는 관광요정의 여성

들이 모자라 다음 순서로 콜걸이 등장하게 된다. 이들도 역시 기업화되 있어 전화가 오면 자기차로 데려다 준다.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번창해 나가는 제주도의 기생관광 사업은 이 땅의 여성들을 성상품으로 팔아먹는 공장이 되 가고 있다. 이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들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시책에 의해 우린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가? 진정한 국민의 중,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부, 아름다운 한국의 제주도를 만들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性) - 제국주의 의 희생자들

— 동남아 매매춘(賣買春)¹⁾ 관광의 실태 —

손 덕 수
(여성사회학전공 한신대강사)

문제제기

남녀간의 성(性) 문제, 매춘의 문제는 어제 오늘 생긴 문제가 아니다. 아마도 결혼의 역사, 인류의 역사와 함께 생긴 가장 오래된 문제이며, 여성을 오랫동안 괴롭혀 왔던 악마적인 속성을 가진 고질병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오늘날 매춘문제를 다시 거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동남아 제국에서 새롭게 부흥하고 있는 매춘현상은 개개인의 타락이거나 도덕적인 호소로서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 경제 구조적으로 매춘을 국가가 조장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야말로 국가들이 매춘업을 하나의 새로운 직종으로 개발하고 있고 선진국에 하나의 “상품목”으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성(性)산업”이 거국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들은 경제대국 이라는 후광을 뒤에 업고 후진국 처녀들의 성

주1) 賣買春 - 매춘은 몸을 파는 사람과 몸을 사는 사람이 있을 때 성립하므로 賣春婦와 賣春夫가 똑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매춘을 “매-매춘(賣買春)”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性)을 덩핑해가는 성-제국주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국가재정이 바닥이 나서 빈곤에 허덕이는 제3 세계는 국제 매춘업을 통해서 빈곤을 메꾸려 하고 있고, 실제로 동남아 몇 나라에서는 이미 이것이 외화획득이 절대적인 몫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그 악명으로 이름 높은 태국의 맛사지 걸, 필리핀의 호스피타리티 걸 (Hospitality girl), 대만의 꾸냥, 그리고 한국의 관광기생들은 제3 세계-제1 세계의 사이에 새로운 국제유통 과정으로 부상되고 있다.

수세기에 걸쳐 동남아의 여러 식민지들을 총칼로서 다스려온 식민 제국주의 나라들은 이번엔 엔화를 가지고 또다시 후진국 여성들을 상품화하여, “성(性)사냥”을 꾀하고 있다. 이를 가리켜 필리핀의 한 교수는 “그들은 민간복으로 갈아입는 제국군대와 같다”고 개탄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경제 제국주의 위에 성(性) 제국주의라는 유행의 탑을 쌓고 있다. 이 성(性)-제국주의에 희생되는 동남아 여성들의 실태를 밝혀본다.

* 성(性)-사냥의 실상들

1. 태국: 방콕의 맛사지 처녀들과 그 역사

아시아의 유곽으로 불리는 태국의 국제 매춘업이 거국적으로 기업화 된데는 60년대 월남 전쟁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유는 현재의 태국의 국제 매춘업은 60년대부터 시작된 미군주둔이 뿌린 씨앗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60년대 월남 전장터에서 살아남은 미국병사들이 하루에도 수천명씩 공수비행기로 실려와서 태국 땅에 뿌려지면 가난하고 배고픈 태국 농촌 처녀들은 낚시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가, 미군 위안부가 되었고, 남자들은 바닷가의 그물을 버리고 펄프와 웨이터가 되었다’라고 “새로운 노예시장”의 저자 (H. Schmidt, 1985 Basel)는 서술하고 있다.

“전쟁중에도 다음 전쟁을 치루기 위해서 전투 휴양이 필요한 군인 병사들을 실어나르는데, 그 수는 매해 700,000 명이나 되었다. 태국 북쪽 가난한 지역에는 즉시 36개의 유곽이 차려지고, 태국 포주들은 미군의 성(性) 홀몬 처리를 해주며 재미를 톡톡히 보았다”

“그러나 자국의 딸들의 몸이 썩어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 75년도에 미군이 철수하자 독버섯처럼 융성했던 유곽은 일대 맛사지 살롱으로 탈바꿈 해갔다. 이번에는 선진공업국 남성들의 휴양소가 되었다. 태양-바다-성-

미소의 깃발을 날리며 도착한 일본과 유럽 남자들은 그동안 미군이 차지했던 태국 여성들을 타고 앉아, 이번엔 총알대신 “오입폭탄”을 터트리기 시작한 것이다. 태국 처녀들은 외국남자의 먹이가 됨으로서 자국 남성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희생과 모욕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월남전쟁에 참전하는 미군(美軍)을 상대로 시작된 태국의 매춘산업은 현재 최대의 외화획득산업으로 부상하여, 빈곤 타개책에 훌륭한 공헌을 하고 있다. 아시아의 유곽지대로 널리 이름을 날리고 있는 태국의 맛사지 걸에 종사하는 여성이 거의 100 만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1천만불이라고 한 태국 여성 해방단체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액수는 한 도(道)의 1년 예산보다 많은 것이다.²⁾ (1979년 말까지 140 만명의 관광객 유치하여 약 4 억불의 수입을 겨냥하고 있다) 관광진흥청은 관광객을 위해 119 개의 이발소와 찻집, 119 개 맛사지 실, 248 개의 유곽, 394 개의 디스코-식당등을 관광품목으로 개발하여 매춘을 장려하고 있다.³⁾

주 2) 베틀: “여성의 전화” 1985년 5월 손 덕 수

3) Pasuk Phongpaicht(1980): “Rural Women of Thailand; From Peasant Girls to Bangkok Massages” I.L.O



태국의 맛사지 처녀들은 관광객을 “맛사지” 해주고 1 시간당 4 불 (특별맛사지 17 불까지) 정도를 받는데, 결국 그녀가 손에 쥐는 액수는 이중 삼분의 일정도 뿐이다. 락(Lak)라는 16세된 소녀는 50센트 받고 외국 관광객에게 1시간 동안 맛사지를 해 주었는데, 이는 실상 저

급 매춘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소녀의 부모는 농장에서 하루 품삯 1 불을 받고 일하는 가난한 농사꾼인데 가난을 견디지 못해 포주에게 딸자식을 150 불에 팔아버리고 가버린 것이다. 맞사지 처녀들의 수입은 매우 다양하여, 75 불에서 750 불(월수입)이나 된다. 그러나 포주, 중간 소개업자, 기동서방, 경찰, 조사국, 병원, 호텔관리인등등에게 상납하고 뜯기면 실상 손에 쥐는 액수는 얼마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수입의 높~낮은 자기 시골집에 보내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무학이거나 국중퇴의 학력이며, (동)북부지방⁴⁾의 농촌 출신으로 빈곤을 탈출하여 대도시 가정부(월급 15~20 불), 접대부(월급 20~30 불) 혹은 실업자의 전직을 가진 여성들이다.⁵⁾ 또한 과부나 이혼 여성들도 여기에는 적지 않다.

1,000명의 맞사지 걸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⁶⁾에 의하면 그중 752명이 아이를 분만하고, 190명은 1번이상의 낙태수술(비합법적으로)을 경험하였고 많은 여성들 주⁴⁾ 이 지역은 세계은행이 규정한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70년 이후 이농현상이 격증하고 있다.

5) Susanne Lipka. Das Käufliche Glück in Südostasien Münster. 1985.

6) Tourism Selling Southeast Asia

이 통증과 불감증과 이름모를 아픔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젊은 처녀들은 태국도시의 성장과 빈곤을 타개하기 위해서 착취되는 농촌차원의 가장 좋은 “토산품목”이다. 그녀들이 몸으로 벌여 들이는 수입은 국가 외화획득의 3위나 된다. 그리하여 매춘관광으로 뿌려진 부(富)의 씨앗은 그 푸른 가지와 잎들을 내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이를 근대화와 경제성장이라고 찬양한다. 그러나 그 피상한 나무는 전국에 음울한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점차 나라전체의 영양분을 빨아 먹어가고 있다. 딸을 팔은 개인이나 국가가 부흥했다는 역사는 한번도 없었고 딸의 세대들은 그 외화때문에 앞으로 무거운 희생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2. 대만의 꾸냥들

대만의 매춘관광의 실정 역시 태국의 매춘 역사와 그 길을 같이 한다. 월남전쟁시 사용되었던 미군의 성휴양지는 전쟁후 곧 일본 남성들의 휴양지로 바뀌었다. 대만에서는 정부서 발부하는 매춘 허가증을 가진 공식 매춘부의 수는 약 22만명이나 되고 무허가 지하의 매춘녀를 합치면 배 이상이 된다고 한다. 그녀들의 출신은 가난한 농촌 가정이나 노동자의 딸들이며, 혹은 고아, 그리고 대만의 원주민들의 딸들까지 성 산업에 대거 진출하고 있다. 매춘이 거래

되는 장소는 관광호텔, 카바레, 이발소, 술집, 미용실, 식당 혹은 양복점까지도 즉 인간이 모인 모든 장소가 인신매매업소로까지 전락 되었다. 대만의 꾸냥들은 관광객에게 약 1,200 엔 (약 5만원)에서 약 3천엔 (12만원이상)을 받게 되지만, 결국 손에 들어오는 돈은 그중 농밖엔 안된다. 그 화대가 그 여성의 손에 들어오기 까지 대여섯 사람의 손들을 거쳐서 (즉 업주, 관광여행 안내소, 깡패, 지방의 회 간부, 당원정보국, 특수기관에까지 상납) 마지막 남는 부스러기 몇푼을 차지한다. 이런 현상은 매춘이 공적기관의 적극적인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증거를 보여주고도 한다. 그들은 자국(自國)의 여자를 놓고 매춘 놀음을 하는 일종의 합법화된 '포주의 한패거리'라고 명명해도 무방할 것이다.

3. 필리핀의 Hospitality girl (접대부)

남성의 매춘관광의 메카 (Macca) 로 알려진 필리핀의 관광산업은 외화수입의 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72 년도에 약 4,000 만불에서 '80 년초엔 4 억을 훨씬 웃돌았다. 그리하여 거대한 외국빚 ('79 년도 96 억불)도 갚고, 무역적자 ('79 년도 약 6 억불)도 메꿀 수 있어 필리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일본관광여행사에 친서를 보내어

필리핀 매춘 여행에 일본객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정부는 국제매춘업은 정부의 특별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서방 은행에 차관을 얻어 대형 고급호텔과 각종 유흥시설을 확충하였고, 매춘 (買春)의 남성을 모으기 위해 외국인에게 특별할인으로 Sex-Sale의 성 대매출할인을 각국 매스컴에 신기도 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로 인한 실수입은 다른 동남아시아에 비해 적었다. 왜냐하면 필리핀 호텔의 절반 이상이 다국적 기업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의 의미는 "관광지에 뿌려진 1불속에 77센트는 다시 관광객을 보낸 나라에 환원된다." 7)는 말이다. 예들들어 일본관광객은 일본여행사의 주선으로 일본 항공을 타고와서 일본자본이 경영하는 호텔로 간다. 호텔안의 승강기, 전기용품, 유행장치등 모두 일본에서 수입되어 온 것이다. 현지의 여행업자는 안내인까지 포함하여 모두 일본인이고, 손님은 일본제버스를 타고 일본인 소유의 나이트 클럽과 맛사지실로 간다. 식사도 일본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에 가서 일본에서 수입된 음

주 7) "Tourism and Caravan" Science and Society. 1973.74 p.475.

식물을 먹는다.⁸⁾ 이러한 경우는 결과적으로 가난한 필리핀이 도리어 부유한 일본에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격이된다. '호스피타리티 걸(접대부)'이라고 불려지는 필리핀의 매춘 여성은 가난한 가정과 가난한 지역(레이레 섬, 사마르섬 등)의 극빈한 농촌지역 출신이 대부분이다.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필리핀 여성의 성(性) 윤리는 엄격하여서 혼전에 처녀성을 잃고 혼사를 이루지 못한 여성들이 이 길로 빠진다.

마닐라에만 10 만명의 매춘여성이 있다고 추정되는데, 이들중 정부가 내주는 허가증을 가진 이는 소수에 속하므로 거의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녀들이 받는 손님중 일본 남성들이 제일 많은데 현재는 아랍인과 화교, 유럽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72년도 25,000 명에서 '79년도 250,000명으로 일본관광객이 10 배로 불었다. 일본인이 매춘관광을 위해 뿌리고 간 일일금액(120 불)에서 다제하고 약5 불을 매춘여성들이 받는다. 일본인·업자들에게 다 떼어 주고 남는 것은 피곤한 몸과 단돈 몇불, 그리고 "희롱과 모욕"인 것이다.

다른 도시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닐라에서의 소녀매춘의 증가는 놀라운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뚜장이가 가난한 농촌지역에 출장나가서 사들이든가, 연간 50 불에 빌리기 주8) "제3세계의 관광공해론" 오그라디지움/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편역 p.31. 1985.



로 교섭해서 데려온 아이들이다. 7,8 세난 남녀 아이들이 관광객 앞에서 성 유희를 하고, 후에는 매춘지역에 보내져서 변태성욕자의 유희대상으로도 된다. 호주의 동성연애자들에게도 필리핀의 미소년(美少年)들은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국적기업과 관광산업은 후진국의 대도시에 휘황찬란한 네온싸인과 높은 빌딩과 화려한 분위기를 마련해 준다. 그러나 그것들은 마치 "신(神)처럼 다 주었다가 도로 빼앗아 간다"고 고백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항공사나 호텔을 소유하고 있고 대량의 인간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그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에 있다. 그러나 후진국 여자의 몸을 "자연자원"처럼 수출하여 벌어들인 이윤의 대부분은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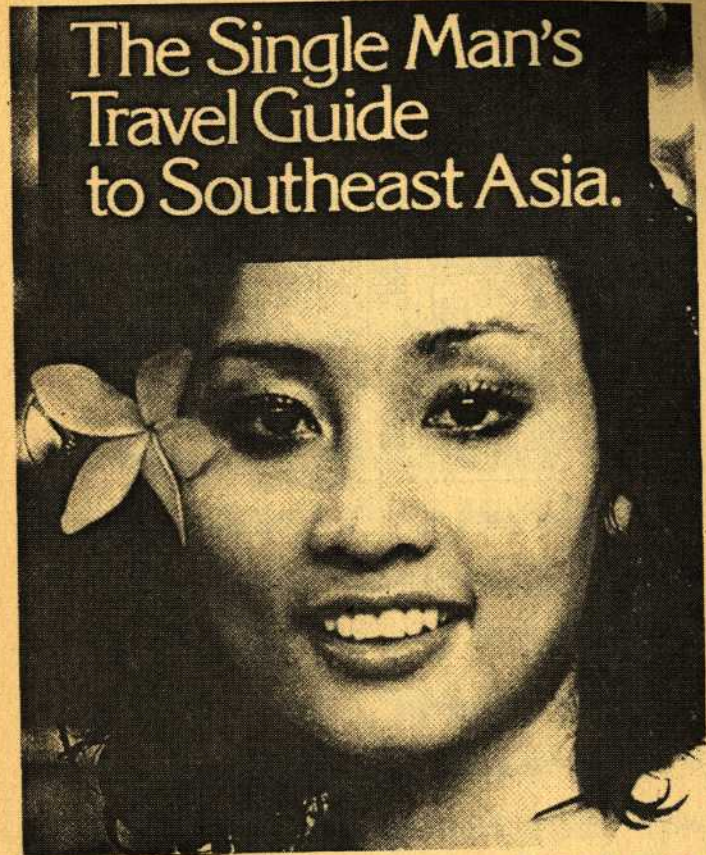
진국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국적 기업만을 살찌게 하므로서 선-후진국간의 악순환이 되게할 뿐이다.

60년대 전투휴가를 매춘(買春)으로 때운 전투적 남성들의 후예들은 이제 산업 사회의 스트레스를 발산하기 위해 '성(性)-강간단'(관광객이 아니라)으로 변신하여 제3세계를 다시금 찬탈해 가고 있다.

4. 새로운 국제결혼시장 - "행복을 팝니다"

국제관광을 유도하는 선전물은 구라과를 비롯한 선진국에도 여러 모습을 띄고 나타나고 있다. "매혹적인 동남아 처녀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한번 그곳으로 날라가 보지않겠는가? 금빛나는 모래밭, 다소곳이 미소짓는 여성들, 방콕은 미녀의 도시....." "남자치고 그런 꿈을 한번도 갖지 않은 자 있을까? 세계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태평양 바닷가에서 이국적인 처녀를 아내로 맞아드린다..... 이 황홀함이 당신을 회춘(回春)시킬 것이다"

이런 국제결혼을 빙자로 한 결혼 중개업소만 해도 독일과 스위스에 300 여개나 된다. 간판을 내걸기도 하고(예를들어 IMTA = Individual Manage Travel Agency), 혹은 전화번호만을 내걸고 하는 업소들도 있다. 그 업소들



은 고객에게서 주문을 받으면 즉시 여자사진과 가격이 적혀 있는 카다로그를 보낸다. 한 신부 값이 400 여만원 (12,000 DM)이다. 두당 소개비만 70 만원에서 140 만원을 (2,000 DM에서 4,000 DM), 나머지 금액은 신랑, 신부 왕복비 행기표, 관광지 나라의 소개업자와 여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여자 (혹은 신부)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미미하다.

(옷과 화장품 값에 불과하다.) 이렇게 접촉된 양쪽의 신혼 부부 후보는 몇번의 편지를 통해 확인되어 신랑이 동남아로 와서 결혼식을 올리던가, 신부가 아내로 팔려 구라파로 떠난다.9)

실업 재혼 전투	관하 주미 국	미 국 결 혼	재 혼 상 담	호 주 장 미	美 國	外 國	명 문 신 단 포	官 許 結 婚 相 談 所
(678) 5888 5557 5001 5002	민 국 내 이 민 국 내 이	전 문 전 문	9090 9888 5620	272 785 422	3515 784 0441 0443	3515 5106 5107 7월	334 6011 6017	

투쟁이업소는 전화와 카다로그만 가지고서도 큰 이윤을 올릴 수 있으므로 더욱 자극적인 선전문을 각 잡지에 띄운다. “……되도록이면 상대를 많이 바꿔 자신의 역량과 취향과 기교를 발견, 개발하라. 급히 서두를 것이 없는 10) 타이, 필리핀 여성들에게서는 당신의 임포텐스가 치료될 것이다” 그리고 후진국 여성구원의 당사자는 구라파 남성이라는 말로도 유혹하면서 “...동남아의 지적인 여성들을 당신의 파트너로 맞이해보라. 그곳의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은 남성 지배사회에서 직업도, 결혼기회도 적다.

동남아 남편들은 지배욕이 강하고, 외도에 충실하여 부인

주9) Das häufliche Glück in Südostasiens, 위와같은
10) 독일 매춘 여성의 경우 12분에 70DM(약 25,000 원)

들을 올린다...” 이런 광고문에서 여자에 대한 성 차별주의는 물론 후진국 남성에 대한 인종차별적 사상은 역력하다. 오랜 식민지적 전통사상과 그위에 화폐 경제중심 사상이 합세하여 여자매물을 국제무역화하고 있다.

그러면 팔려간 신부들은 어떻게 되는가?

한 필리핀의 관계자는 신부를 사러오는 유럽남성들은 대개가 결합이 있는자들 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들은 대개가 이혼경력자, 독신자, 혹은 성격적으로 파괴된 자들이다.

그러나 동남아에 가난한 처녀들은 유럽남자를 만나 그곳으로 시집가는 것을 “출세” 하는 것쯤으로 생각한다. 그녀들은 밥두끼 먹여주고 용돈 주는 남자라면 누구라도 따라가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이 더 심각하다고 평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런식으로라도 뒤에 남은 가난한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일이 성사된 후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는 예외적이고, 대개의 경우 감금되어 살거나 구타 혹은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내 쫓기거나 도망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11)

주 11) '84년도 독일전역에 시설된 “여성의 보호처”(Shelterhouse) 중 29개소에 40명의 동남아여성들이 보호되고 있다. 그중에 필리핀여성 11명 태국 10명, 한국 4명, 월남 4명, 대만 1명, 말레이시아 1명 등등이다.

그러나 여행비자로는 체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녀가 가출할 경우 경찰에 붙잡혀 강제출국을 당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흥등가에 가서 몸을 팔며 고국의 가족에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UN의 보고에 의하면 독일과 스위스에 있는 30 만명의 매춘여성(독일여성 포함)들은 대체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흘러 들어왔는데,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외국여성의 확실한 숫자는 알길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관광은 명백히 매춘을 장려한다. 여성들은 이미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상품 더 나아가 “천연자연”이나 “부존자원” 처럼 쓰여지고 팔려간다.

18 세기에 아프리카 흑인들을 상선에 실어갔던 선진국의 노예행상의 약탈경제제도는 또다시 후진국 여성을 향해 적용되고 있다. 여성들의 “소리없는 죽음”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유럽 여성해방 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여성인신매매 철폐운동을 즐기치게 펴고 있다. 그러나 거의 성과없이 끝나고 만다. 왜 그러할까?

매춘문제 해결은 후진국의 착취위에 선진국의 부(富)가 가능한 세계경제 질서에 대한 도전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비-이윤중심이 되어가는 오늘날의 사회는 인간

을 소모하고 또한 인간에게서 이윤을 취하는 경제제도로 바뀌었다. 그들이(포주들) 적발되어도 법정에 서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는 높이 찬양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하나도 위법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착취의 도구로서의 자본주의적 화폐경제 이념을 거부하는 운동과 반성이 함께 일어나야 할 것이다.

마무리 짓는 말

여성이 집단적으로 “성(性)-산업”에 대거 진출한 동남아 여러나라에서는 성(性)은 하나의 “수출”이란 범주에 포함되어 후진국사회 불경기에 활기를 준 것은 사실이다. 즉 그것은 선진국과의 무역적자를 여체(女體)를 통해 보충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그리하여 성(Sex)은 돈 있는 개인이나 돈있는 국가가 사고 팔수 있는 “물건”으로 전락되어 버렸고, 성(Sex)을 핵으로 한 향락산업은 국가산업으로 탈바꿈 하였다. 가난한 부모는 딸을 팔고 가난한 나라는 어미를 파는 “포주”가 되어가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그 어느것도 개인이나 국가의 가난은 치유될 수가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에 팽배해 가는 매춘문화와 선진국의 강간문화는 후진국땅 전체를 오염시

켜 인간성을 파괴시킬 뿐이다. 인간간(국제간)의 경제적 가난(폭력)은 성적 폭력을 유발시키고 이것은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어간다.

국내 남녀간의 성적-경제적 불균형에서 파생된 매춘업은, 국제간의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해 국제 매춘업으로 확대되었다. 국제 무대로 옮겨진 매춘부(賣春婦-후진국)는 굴욕을 팔고, 선진국의 매춘부(買春夫)는 그들의 권력을 파는 관계로 되어 후진국위에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균립해가고 있다. 그리하여 후진국 매춘은 선진국에 의한 착취당하는 계급이 되었으며 선진국의 경제적 기반이 되어 주고 있는 것이다. 선, 후진국간의 문제는 성(性)을 매개로 한 남.녀문제처럼 되어간다. 후진국 성(性)의 장악은 신식민주주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아닐까?

Ⅲ부. 매춘 문제에 대한 여성운동론적 접근

매춘 문제에 대한 여성운동론적 접근

이 미 경(NCC 여성위원)

우리는 구입과 판매를 한자로 '매매'로 읽지만, 표기는 賣買로 쓴다. 매춘의 매자는 판매賣자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성을 판매하는 행위에만 중점을 두고, 구입하는 행위 는 문제삼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매춘은 성관계 이기 때문에 쌍방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성 을 경제적 관계로 '팔고 사는 행위'라고 풀이해야 정확 할 것이다. 그러므로 파는 관계에만 초점을 둔 賣春의 정 의는 일방적이며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개념이 현 재 널리 통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61년에 제 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있는데, 이 법에는 '윤락행



위는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 즉 돈 받기 위해 성행위를 하는 것, 성을 파는 것이 매춘이라 하고 있다. 일본의 '매춘 방지법'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해서 성을 파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것은 윤락행위이고 방지되어야 할 사항이다라고 되었다. 성을 파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방지되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매춘여성, 윤락여성 등으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점점 더 소외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매매춘은 賣買春이나 買春으로 인식되어야 합당하다. 여성에 대한 가장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것이 매춘이다.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억압, 착취중 가장 극심한 형태는 여성의 성을 구입해서 쾌락을 누리는 행위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구입하고 판매하는 쌍방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매춘이 왜 판매하는 여성에게만 낙인이 찍히고 책임과 원인이 전가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성을 구매하고 쾌락을 누리는 사람보다 그렇게 팔 수 밖에 없고 성을 파는 행위를 통해서 육체나 정신이 망가지고 희생당하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 . 은폐시켜 희생자들에게 문제를 전가하는 논리라고 하겠



다. 세상의 현상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이 이런식이다. 농민, 노동자들의 빈곤문제도 그 구조적 원인을 간과한 채 '너희들이 게을러서 무식해서 못산다'라는 식으로 문제의 핵심을 은폐하고 개인적인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매춘을 판매하는 賣자로 취급해서 법률로도, 사회 통념적으로도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희생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접근방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희생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여러가지 이론들 때문에 우리 정신도 오염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자.

매춘을 설명하는 것에는 遺傳이론이 있다.

즉, '매춘을 하는 여성은 유전적으로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많

이 유포되어있다. 남자들도 “그 여자들은 성을 특별히 밝히는 여자들이다. 자기가 정숙하면 그런데 빠지지 않을 텐데 자기가 그러니까 몸을 팔러나온다.”라고 한다. 이 이론을 받아들여 보면, 남자도 성욕이 특별히 강한 사람이 있을텐데, 왜 매춘남은 안 나오는가? 개인적으로 성욕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으로는 매춘의 원인, 그것도 매춘이 여성에게만 주로 집중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

또 한가지의 이론은 생리적 차이 이론이다.

‘남자들은 왜 매춘녀를 찾는가? 그것은 남자들이 여성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전체 여자와 남자를 비교한 이론이다. ‘남자들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성욕이 강하고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 이외의 다른 여성의 성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이중적인 성윤리를 당연시하고 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킨제이 보고서에 의하면 ‘남녀의 생리적 성적요구의 차이는 없다’라는 보고를 통해 이 이론 역시 틀린 것이 입증되고 있다. 사회의 이중적인 성윤리 구조때문에 여자들은 성을 억제해야 되고 남자들은 발산해도 허용이 되고, 남자들은 혼외 성관계가 은밀히, 또는 공공연하게 행해지는데 반해, 여자들은 단 한번의 혼외 성관계도 상대적으로 가혹하게 응징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이론은 남성위주의 이중적 성윤리를 보장

해 주는 이론일 뿐이다. 이런 틀린 이론들이 널리 유포되어 남성의 강력한 성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시궁창이 없으면 양가집 여자가 강간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매춘여성도 필요악이라고 까지 인식되어져 있다.

또한 모든 남성을 자제력이 없는 동물같은 존재로 인정하는 이러한 이론은 반대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약간의 매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주장은 성욕과 맞지 않은 결혼연령에 찾는다. 즉 성욕이 가장 강한 때는 남자는 16 - 17 세 때이나 결혼은 26세나 30세 정도에 하게되며, 또 독신남으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춘여성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가 왜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를 답할 수 있지 않다면 그러한 논리의 설득력은 없다. 이것은 남녀간의 이중적 성윤리를 유지하고 합리화시키는 이론에 다름아니다.

이밖에도 잘못된 이론들이 많으나, 이 정도로 줄인다.

매춘문제에 대한 여성운동적 접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매춘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매춘을 통해서 착취당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이 인격을 회복하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론. 접근방법이 바로 여성운동론적 접근방법이다. 이것은 여성만을 일방적

으로 회복시키려는 접근이 아니라, 성을 매매함으로써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비 인간화 되는것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매춘의 사고 파는 행위는 서로 착취하고 있는 관계이다. 여자는 자신의 몸을 팔고 돈을 위해 남자를 이용하는 것이고, 대신에 남자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여자를 상품·물건으로 취급을 하게된다. 이런 과정에서 남자 역시 비인간화된다. 즉 매춘이라는 팔고 사는 관계에서는 남녀 모두 비인간화 된다. 남자들이 매춘여성을 대할때는 “내가 돈을 주고 샀다”라는 의식 때문에 물건취급을 하고 아내나 애인한테는 원할수 없는 변태적 행위를 요구한다. 매춘여성에게는 그러한 변태적 행위를 거부할 권리조차 박탈되기 일췌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극심한 경우 여성이 살해되는 사례까지 나타나는 것이다. 돈 몇푼을 주고 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매춘남성의 사고와 행위는 저임금으로 여성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가 이상의 착취행위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비 윤리적이고 범죄적인 매춘이 행해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 이유를 우리나라의 매춘현실과 연결시켜 살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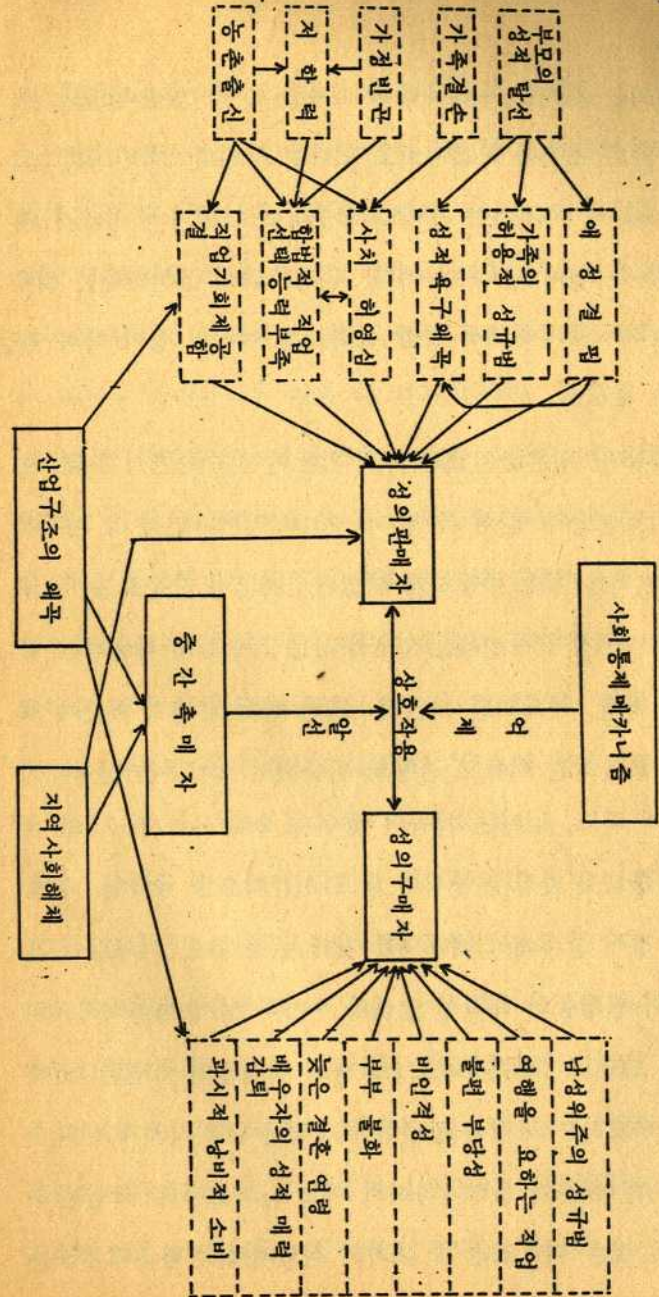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가지 유형의 매춘, 즉 전통형매춘과 산업형 매춘이 있다. 양공주, 기지촌여성, 청량리 588

등 집단적으로 포주와의 관계에 매여 있는 흔히 ‘창녀’라 불리는 여성은 전통적 매춘에 속한다. 이들은 산업형 매춘과는 그 발생과 배경이 상당히 다르다. 이들은 절대적 빈곤이 주 원인이며 학력이 훨씬 더 낮고, 가족의 사회적 배경도 낮다. 또한 하층계급이 많고, 수입도 산업형 매춘보다 훨씬 떨어지고, 아무리 벌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으며 포주 소유의 작은방 하나를 빌려서 장사하는 그러한 식이다.

산업형 매춘이란 산업화가 되어 서비스업종이 발달하여 특히接客 서비스업이 확장되면서 생겨나는 것이다.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서비스업의 발달은 2차산업이 어느 단계까지 발전하면 그것을 유지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금융통신, 운수들의 서비스업이 발달하게 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업의 발달은 2차산업 발전과 상관없이 전개되는데 특히接客 서비스 업종이 굉장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들면, 관광산업의 발전이나 향락산업의 확장등 그것이다. 이것을 통해 다양한 직종 예컨대 호스티스, 안마사, 면도사, 맛사지걸, 기생등이 생겨났고, 여기에 여성이 고용되었다. 이 직종 종사자는 엄연히 직업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은 자율, 타율로

매춘을 강요받게 된다. 이것이 산업형 매춘의 특징인 것이다. 그리하여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이 80-90만에서 100만이다라는 추정은 전통적 매춘만이 아니라 급격히 확장되는接客서비스업종의 여성들을 잠재적 매춘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와같은 우리나라 매춘 실태의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전통적 매춘 부터 살펴보자. 어느사회든지 매춘은 고대부터 계급사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있어왔다. 즉 매춘은 계급이 발생할 때부터 존재했다. 우리사회도 고대부터 매춘이 존재했다. 이조시대에는 기생의 형태도 있었고 사당패들도 매춘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매춘여성은 소수였다. 이것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치하때 부터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에 상륙하면서 부터 이들 낭인·장사군등 일본남자들이 이 땅에 정착하면서 일본의 저급창녀를 함께 데려다 유곽을 형성, 점차 확대되어 나가게 되었다. 제국주의하에서 식민지 민중들은 전반적으로 착취 당하여 궁핍해지자 이들이 유곽으로 모이면서 창녀수가 확대되어 나갔다. 이에 국가는 1910년 '유곽법 창기취재 규정' 이라는 매춘에 대한 법을 만들었다. 즉 공창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고 제국주의 침입과 함께 매춘을 확



장시키는 계기를 우리나라에 가져왔다. 즉 일반적으로 제국주의가 매춘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식민지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이 제국주의이고 여자의 성까지 착취해가는 것이 제국주의이다. 우리나라의 정신대라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하에서 가장 참혹하게 여성의 성이 착취 억압당한 예이다.

1945년 일본군이 물러나고 미군이 진주하면서 부터 이후 국토분단과 한국 전쟁 6.25가 일어나면서 그 이후도 미군기지가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미군이 주둔하는 것과 함께 미군기지 주변에는 양공주라는 특수하게 매춘하는 여성이 형성,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 남성이 매춘에 빠지고 확산되는 이유도 전쟁의 와중에서 여자는 가난하니까 몸팔게 되고, 남자는 가족과 헤어져 죽이느냐 사느냐의 극한 상황에서 가장 본능적이 되고 인간적으로 극악한 동물적인 정서 상태에서 매춘녀를 찾게 된것이다. 이와같이 제국주의, 전쟁등의 폭력성 앞에서 여자의 성이 착취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60만의 장정들이 3년간 군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광범한 매춘군을 유지시키게 된다. 전통적인 매춘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나라보다 더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조건 즉 과거의 식민지적 경험, 미군주둔,

3년간의 군복무등이 이유가 되고 있다고 본다.

산업형 매춘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산업구조의 왜곡에 기인한다. 한국 경제가 70년대이후 수출산업 위주에 중점을 두고, 차관, 직합작투자등을 도입하면서 선진국의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해오는 과정을 밟아왔다는 것은 다 아는 바이다.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국민총소득이 증가하고 생활 수준도 어느정도 윤택하게 되어 절대적 빈곤을 다소 해결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 산업구조는 내부의 필요에 의해 균형적으로 정립, 발전하기보다는, 선진국의 경제 재편과 계획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한국 경제구조의 성격을 결정했다. 한국 경제는 외국자본과 외국시장에 의존하는 구조적 성격으로 외화(달러)의 필요성이 절대적이게 되었다.

즉, 무엇을 팔던간에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관광사업이 정착, 점차 확대되는 것도 투자를 덜하고도 외화를 손쉽게 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데서 착안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단순한 관광만이 아니라 여자를 미끼로 하여 더 많은 외화를 벌자고 하여 기생관광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다시말하면 정부가 외화획득을 위해 정책적으로 기생관광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요인은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이 문제다. 중소기업은 보호되지 못하고 재벌만 키워나가는 구조가 문제다. 경제 성장과정에서 졸부가 된 사람이 꽤 많다. 즉 중소기업을 운영할 만한 자본가가 많지만 중소기업이 장사가 될만하면 재벌이 먹어버려 손털려 버리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들은 중소기업에 투자를 안한다. 이들은 요정이나 먹는 것등의 접객업소를 차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이며 여자장사까지 첨가하면 더 많은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몰리게 된다. 이처럼 중소자본이 접객 서비스업에 집중됨으로서 향락산업이 이상비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생산직중의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저임금 문제

이다.

여성노동력이 공장을 가려하니 임금이 너무 적고 향락산업으로 가려하니 사회적 성격이 문제지만 이것을 눈감아버리면 '공순이'나 '기생년'이나 천대받기는 마찬가지인데 공순이 보다는 기생이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사고가 팽배해지고 있다. 실지로 섬유업계에서는 여자구인난이 많이 있지만 향락업소 주변엔 서로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 이들의 임금차이를 살펴보면 제조업체 여성들의 하루 일당은 3,000 원미만이나 향락업소에 있는 사람은 한달 평균 80만원정도로, 룸싸롱 87-88만원, 나이트클럽 89만원, 요정기생 49-50만원, 면도사 35만원정도로 그 차액이 엄청나다. 업연한 직업여성인 이들을 잠재적 매춘여성으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가슴아픈일이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 의하면 손님 80-90%가 외박을 요구하며, 거기에 대해 대부분이 응한다고 답하고 있으며 또한 성교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가까운 마사지 접촉등 성적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들의 소득이 손님의 팁에 주로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도 큰 원인이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매춘의 원인은 전쟁경험과 남북 대치로 인한 군대의 존재로 인하여 다른 나라보다도 전통적 매춘의 뿌리가 깊으며, 거기에 덧붙여 60년대 이후 대외의존적 경제 개발의 성격으로 인하여 접객서비스업의 산업형 매춘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남성 위주의 이중적 성윤리 규범이 이것을 합리화 시키고 있다.

우리는 매춘이야말로 여성을 가장 비인간적으로 파괴, 착취한다는 관점에서 이와같은 원인들을 해결해 나가는 여성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안 내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본회는 에큐메니칼 정신을 구현하는 교회여성들이 연합하여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웃과 사랑하며, 화해의 도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일한다.

- 첫째, 교회여성들로 하여금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해 함께 발언하고 행동하도록 한다.
- 둘째, 교회여성들로 하여금 사회에 공헌하게 하고, 신앙에 적합한 삶을 개발하도록 하며 새로운 형태의 복음증거와 봉사를 하도록 한다.
- 셋째, 교회여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넷째, 타 단체 및 세계의 교회여성들과 협력하여 전 인류의 공동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고취한다.

후원안내
 * 후원자가 되신 분에게는 본회 회보 및 본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집을 드리며 본회 교육 및 기타 행사에 참가하실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후원방법
 연락처 : 서울 중구 정동 1-23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전화번호 : 738-5340, 736-9804
 송 금 : 조흥은행 308-1-107296 한국교회여성연합회로 보내주시고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간행물

1. 조사자료

기생관광	1983
한국인원폭피해자	1983
최루탄자료 모듬집	1987

2. 교육자료

교회여성과 지도자	1986
땅의사람들, 여성농민	1987
매춘문제와 여성운동	1987

3. 자 료

핵의 아이들	1986
--------	------

4. 영문번역서

KISAENG TOURISM	1983
CHILDREN OF THE ATOM-BOMB	1987

44.8.6